

비행기내 소란 등 '항공회항방지법' 오늘부터 시행

폭언·음주 소란 1000만원 벌금으로 상향
승무원 업무방해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앞으로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승객은 곧바로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비행기 기장을 비롯한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안, 일명 '항공회항방지법'이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법 개정안은 2014년 12월 당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사건을 계기로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장 등은 항공보안법에

다른 죄를 범한 범인에 대해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반드시 인도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장 등 승무원에 대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처벌 수준이 현행 벌금 500만원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을 벌이거나 음주를 한 경우에도 현행 500만원 벌금에서 1000만원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2013년 203건에서 지

난해 354건, 올해 10월까지 369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밖에도 승객 협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의 전제조건인 기장의 사전 경고 관련 내용을 삭제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고,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사법처리 절차도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그간의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현경 기자 choi@donga.com

'신형 K7 사전계약' 나흘 만에 5000대 돌파

기아자동차의 신형 K7(사진)이 준대형 세단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18일 기아차에 따르면, 12일부터 사전계약을 시작한 신형 K7의 누적 계약대수가 나흘 만인 15일까지 5000대를 돌파했다. 신형 K7은 사전계약을 시작한 12일 첫날에만 이미 2000대를 넘어서는 계약 대수를 기록해 하루 만에 K7의 지난해 월평균 판매대수 1700여대를 넘겼다. 또 영업일 기준 5일만인 15일 이미 3개월 치에 해당하는 판매량을 기록했다. 신형 K7이 가격대가 다소 높은 준대형 세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계약 추이는 이례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세부 모델 중에서는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해 연비와 성능을 끌어올린 3.3 가솔린 모델의 비중이 23%나 돼 기존 K7 모델의 가솔린 판매 0.8% 대비 대폭 상승했다. 전 세계 완성차업체 최초로 기아차가 독자개발에 성공한 '전륜 8단 자동변속기'는 총 3년2개월의 연구 기간 동안 해외 76건, 국내 67건 등 총



143건의 특허 출원 끝에 완성된 최첨단 변속기다. 기아차는 신형 K7을 출시하면서 기존 3.0 가솔린 모델에 3.3 가솔린 모델에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하고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사양을 추가했다. 그 결과 다른 업체의 동급 3.0 가솔린 모델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갖추면서도 가격대는 비슷해진 것이 인기의 비결이다. 새롭게 추가한 디젤 모델 또한 전체 계약대수 중 21%를 차지했다. 기아차는 초반 흥행 돌풍을 이어가기 위해 이달 말 시승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법인 판촉을 벌일 계획이다. 신형 K7은 25일 정식 출시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수박보다 단 한라봉 맛 보세요. 18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임곡점 등에서 모델들이 만감류(한라봉·레드향·천혜향 등)를 선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점의 새로운 청과 브랜드 H-SWEET의 첫 시리즈인 만감류는 당도 13 브릭스 이상, 산도 1% 미만으로 보통 수박의 당도인 10~12 브릭스보다 높아 더 달다.

뉴스사

곤지암 리조트 럭키7 미타입스 이벤트

경기도 광주 서브윌 곤지암 리조트(사진)는 2월 21일까지 '럭키7 미타입스 응모 이벤트'를 실시한다.

올 시즌 사용한 시간제리프트권 '미타입스'를 응모권과 함께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총 1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 18일부터 2월 7일까지, 2월 8일부터 21일까지 2회로 나누어 진행하며 내년 스키시즌에 사용할 수 있는 리프트권을 비롯해 프리미엄 객실 1박, 뷔페 식사권, 곤지암 화담숲 이용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는 사용한 미타입스 리프트권을 스키하우스 1층 응모함에 응모권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KT&G 해외 담배 판매량, 국내판매량 추월

KT&G의 지난해 해외 담배 판매량이 처음으로 국내 판매량을 넘어섰다. KT&G가 2015년 판매실적을 집계한 결과, 국내 수출물량과 해외공장에서 생산해 판매한 물량을 합산한 해외 판매량이 465억 개비를 기록해 국내 판매량 406억 개비를 큰 폭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시절이던 1999년 26억 개비를 불과했던 해외 수출량은 2002년 민영화 후 계기로 매년 비약적으로 늘었다. 권역별 판매 비중은 중동(48.8%)이 해외 수출량의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25.4%), 중남미·유럽(14.2%), CIS·중아시아(11.5%) 순이다. 제품별로는 ESSE(55.5%), PINE(29.2%), TIME(5.3%)가 해외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강화군·공주시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

강화군과 공주시가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됐다. '올해의 관광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관광 잠재력이 큰 중소도시를 선정해 3년간 최대 국비 25억 원을 지원해 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강화와 공주는 독특한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로 다른 매력을 발전시킬 것으로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강화군은 참성단, 고인돌, 팔만대장경, 고려궁지, 외규장각 등 고대

에서 근대까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갖고 있어 '감성으로 살아 숨 쉬는 역사·문화도시'를 실현할 계획이다. 공주시는 금강과 계룡산 등의 자연환경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흥미진진한 관광도시'를 육성할 예정이다. '올해의 관광도시'는 2016년 무주군, 제천시, 통영시, 2017년 강릉시, 고령군, 광주광역시 남구,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강화와 공주 등 지금까지 8개 도시가 선정됐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오늘의 채널A



산양삼 재배하는 방태산 산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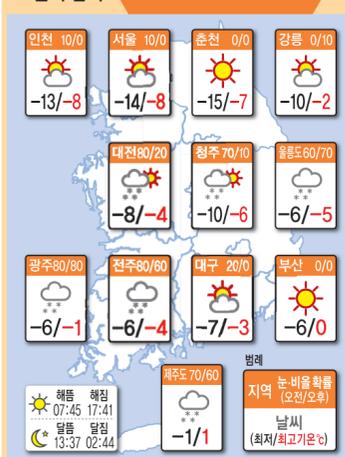
강원도 인제의 방태산 자락. 이 곳에는 임재운(55)씨가 심상치 않은 일장 속에서 남다른 즐거움과 열정을 쏟고 있다.

임재운씨는 9만9000㎡(3만여평)의 산 공간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다. 그는 산양삼에 한창 폭 빠져 있다. 산양삼을 위해 북향 땅만 골라서 사는가하면, 집안이 온통 산양삼으로 가득 찰 정도다. 그의 산양삼 사랑은 유난해서, 새참으로 먹는 라면에까지 톱톱 넣어 끓여먹는다. 말린 산양삼 가구를 섞어 장아찌와 고추장 등을 직접 담근다. 심지어 23년산 산양삼주를 곁들인 뱃백 속까지 내어놓는다.

그가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곳에서 홀로 산양삼과 함께 사는 사연, 오후 8시20분 공개된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오늘의 날씨



주간 날씨 서울/경기 영동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2020-1010, 구독신청 1588-2020, FAX 02-2020-1015

TV 프로그램 19일 (화)

채널A 02-2020-3100, KBS 02-781-1000, MBC 02-780-0015, SBS 02-2113-5000, TV조선 1661-0190, JTBC 02-751-6000, MBN 02-2000-3114, EBS 02-526-2000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10 columns: Channel, Time, Program Name. Lists programs for Channel A, KBS1, KBS2, MBC, SBS, TV조선, JTBC, MBN, EBS1, and 지역민방.